

밝은 것이 어찌 연등 뿐이라...

26일 전국은 연등 물결...부처님오신날 봉축열기 고조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4월 26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날 정오 1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된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 일대는 가족단위 시민 2만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흥겨운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특히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외국인 연등만들기 부스에는 33개국에서 온 1000여 명의 외국인관광객들이 '연등만들기' 체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찬탄하며 즐기는 '어울림마당'이 열렸으며,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연등법회인 '화합한마당'이 봉행됐다.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연등의 광명으로 세간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발원하며, 지혜의 등불을 높이 들고 힘차게 행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등 경연대회 시상에서는 △단체행렬등 부문에서 최우수상 한마음선원, 우수상 봉은사, 장려상 수국사 등이 수상했다. 이어 오후 6시, 동국대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은 10만여 개 연등으로 서울 도심거리를 장엄하며 세계적인 한국의 전통축제의 진수를 보여줬다.

밤 9시 30분부터 서울 종각사거리에서는 10만여 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대동한마당을 펼치며 경제난 극복과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발원했다.

글=조동섭·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